

매일 만나

2023. 8.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01

화요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1:1-5

새찬송가 180장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시편 33:6)



1~5절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부르시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power)이며, 그분의 이루시는 역사(Action)입니다. 창조로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계를 다시리시며, 또한 이 말씀으로 인생들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번째 명령으로 '빛'을 지으셨습니다. 이 지으심은 단순히 하나를 만들어 그곳에 두심이 아니라 빛이 '존재'(있으라)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빛의 속성, 열(뜨거움, 사44:16), 불(타오름, 사31:9), 태양(욥 31:26), 번개(욥 27:3) 등 구체적인 모습을 포용하지만, 이보다 더 큰 상위 개념으로 14절의 기록된 4일째 창조된 광명체(태양과 달)와는 구별됩니다. 오히려 5절은 이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부르신 것에서 저녁과 아침의 빛으로 봅니다.



말씀이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2

수요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1:6-19

새찬송가 292장

-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말씀 암송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5)



6~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 그대로 되니라

6절 ~ 19절은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둘째 날(6~8)에는 공창(하늘)을 만드시되, 위의 공창과 아래 공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9~13)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 땅에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14~19)에는 하늘의 공창(우주)에 광명체들(태양,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계절과 날(Day)과 해(年, year)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날짜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3

목요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1:20-31

새찬송가 337장

- 20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1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22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 23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24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5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6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7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8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 29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30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 암송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14)



20~31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 만들고 ... 다스리게 하자

20절 ~ 31절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 기록입니다.

다섯째 날(20~22)에 큰 바다 짐승들(고래, 상어, 대왕오징어 등)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물고기, 조개, 게, 새우 등)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신 후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23~24) 땅의 모든 짐승들, 가축과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바로 25절~30절까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몇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5절에 나타난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5절~26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남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27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 주신 사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28~29절)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28절에서는 과일, 채소를 주시며,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29절에서는 바다와 하늘, 땅의 모든 짐승을 주시며, 이 짐승들의 먹을 것으로 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창조된 목적을 잊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04

금요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2:1-3

새찬송가 449장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 2:2)



2:1-3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의 창조에 대한 완전성과 만족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식하다'라고 번역한 '샤바트'라는 말은 '하던 일을 그만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카다쉬'는 뜻이지만 본래는 '거룩'이나 '성별'의 개념보다는 '분리'나 '구분'의 뜻을 가진 어휘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특별히 구분하신 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나요?

05

토요일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2:4-17

새찬송가 268장

-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암송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7)



본문설명

2:4-7 흠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생기'라고 번역하는 '니쉬맛 하임'은 흔히 '바람', '영'이라고 번역하는 '루아흐'와 가까운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말로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므로 사람은 '네페쉬 하야' 곧 '산 자'가 되었습니다. 즉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8-15 사람을 에덴동산지기로 세우시다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9-14절은 에덴동산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9절).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더라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5-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하여 창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06

주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2:18-25

새찬송가 261장

- 18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9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21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창 2:23)



2:18-25절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복이 이루어지도록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육체라는 그 신비로운 친밀성을 의미하며 또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여자의 이상적인 역할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며, 하나님이 성혼을 선포하십니다. 즉 결혼을 거룩한 것이며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07

월요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창3:1-8

새찬송가 391장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 암송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 3:8)



3:1-8절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

뱀은 들짐승이었지만 당시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이성적인 동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그의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즉 뱀은 사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남자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여자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권위를 의심케 합니다. 뱀의 무기는 여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에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나요?

08

화요일

하나님이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3:9-24

새찬송가 461장

-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 암송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인간의 비참한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이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 생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었다고 변명합니다. 이를 돌려 말하면 아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자신을 꼬드긴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추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이 자신을 꺾어 먹었다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직접적이고 동물들과 구별된 저주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며 그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가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을 위해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까?

09

수요일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4:1-15

새찬송가 383장

-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 암송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4:7)



인류의 첫 살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죽음의 저주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고 그 이름을 가인(얻었다)이라고 지었습니다. 후에 자녀를 더 주셨는데 그 이름을 아벨(허무)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각각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땅의 소산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죄가 가인을 삼키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짐승의 모습(엎으려 있느니라)을 하고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나 결국 아우 아벨을 쳐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아벨이 흘린 핏소리를 들으며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은 벌이 너무 무거우며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증거의 표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며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파괴적인 무서움을 인지하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10

목요일

비로소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4:16-26

새찬송가 368장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
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싹라였더라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싹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싹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
더라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 암송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창4:26)



인간의 비참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며 자녀 에녹을 낳았고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표를 주셨지만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키려는 모습과,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살고자하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아내를 두 명 취한 인물로 그의 자녀들은 뛰어난 문명을 일궈낸 기술자들이였습니다. 마지막에 라멕이 부르는 복수의 노래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에게 죽음으로 복수하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7배의 약속을 77배로 왜곡, 확대해석함으로 철저히 죄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시는데 셋의 자손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지하며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1

금요일

아담의 계보

창5:1-32

새찬송가 342장

-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게난을 낳았고
- 10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12 게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 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 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 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 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5:12)



아담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계보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그의 신앙을 계승한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죽었더라'라는 기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12

토요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6:1-8

새찬송가 446장

-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본문설명

창세기 6~8장은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홍수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는 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해석입니다. 이 두 후손들,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섞였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룩은 죄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섞이면 거룩이 아닙니다.

결국 거룩은 무너지고 섞이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들에게서 떠나시고, 이들은 "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이 되었다는 말은 죄된 본성 가운데, 목이 곤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좇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 선언되었습니다(창 6:3)



마음으로 짓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13

주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6:9-22

새찬송가 88장

-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고펀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설명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며, 이어서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끊이지 않는 이 은혜의 물결을 보아야 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비록 죄악이 무성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므로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말씀의 권위를 알 것이며, 어떤 상황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고 있습니까?

14

월요일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7:1-24

새찬송가 430장

-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 9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 24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 암송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7:5)



본문설명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 심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1절)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만이 방주에 들어갈 조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노아는 준행하였습니다(5절). 방주에 들어야 할 동물들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홍수의 시간 진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7일 동안 방주에 동물들을 들이고, 7일이 지나서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면 바로 40일 동안 비를 주실 것입니다(4). 이 심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노아는 이 심판의 주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는 대상일 뿐입니다.



나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15

화요일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창8:1-22

새찬송가 321장

-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 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 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 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히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 암송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창8:1)



본문설명

홍수 심판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1절).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억하다(remember)'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차원을 보여줍니다(6:18; 창 9:15; 출 2:24; 6:5).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만한 분이십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기억의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행동하시고 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매우 강력하고 매우 동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16

수요일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창9:1-17

새찬송가 338장

-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 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 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 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1:6)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물심판으로 황폐화된 땅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심판이 없을 것을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과 그 증거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7

목요일

노아와 세 아들

창9:18-29

새찬송가 419장

-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말씀 암송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7:20)



노아의 불완전함

아담의 자손으로 난 사람, 즉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불리었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사건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18

금요일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창10:1-32

새찬송가 542장

-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샅다와 라아마와 샅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21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웨 (하살마웨스) 과 예라와
-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 29 오빌과 하월라와 요발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 30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 암송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17:3)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기점으로 각 종족과 민족으로 나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11장 전에 기록된 족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번영의 축복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거듭 죄악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19

토요일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11:1-9

새찬송가 197장

-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말씀 암송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16:5)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단합된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후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권으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20

주일

셈의 족보

창11:10-32

새찬송가 420장

-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 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 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 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 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 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 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 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 암송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본문설명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과 수명 등을 나열해 놓은 족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역시 그러한 족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족보들은 얼핏 보기에 자칫 별 가치가 없는 그저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 정도로만 인식하여 소홀히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족보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러한 족보를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류 구속 역사를 어떻게 펼쳐 오셨는가를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셈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속성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이어가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1

월요일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12:1-9

새찬송가 336장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 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 암송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2)



본문설명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 이제 막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의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의 사후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확고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2

화요일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으니

창12:10-20

새찬송가 293장

-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 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 었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렘 17:5)



본문설명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자 비교적 식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일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극히 불신앙적 처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기근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좇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23

수요일

눈을 들어 바라본즉

창13:1-18

새찬송가 357장

-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벰엘에 이르며 벰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 암송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 7:7)



본문설명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 제의를 받고 요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요단 들을 택하여 아브라함 곁을 떠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롯이 바라보고 떠난 요단 들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으로 하나님에 의해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과 방탕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그 성품이 선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

목요일

아브람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창14:1-24

새찬송가 84장

- 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 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 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 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 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 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 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매
-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 44:5)



1-24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단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4-16절을 보면 아브람은 롯이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과 약탈당한 재물을 모두 되찾아 돌아 왔습니다. 북부 동맹군과 318명의 싸움은 말 자체가 안되는 그런 터무니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318명의 가신들의 승리로 끝나 버렸습니다.

입이 찢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브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말이 안되는 싸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아브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전진하던 아브람과 318명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니 더욱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싸움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람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5

금요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15:1-21

새찬송가 540장

-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 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1-21절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아브람은 한 때 후사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성화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죄없다고 여겨 주신다고 하셨지만 곧바로 아무런 허물이나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바 | 록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진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26

토요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창16:1-16

새찬송가 267장

-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말씀 암송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후 13:5)



16:1-16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주인 사라의 학대를 못이겨 도망친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와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갈은 하나님을 향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갈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귀하게 여김을 받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람의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이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사심을 받음으로써 하갈이 걸어갔던 험난한 광야와 같은 삶을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7

주일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17:1-14

새찬송가 546장

-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1-14절 성도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란 남성 성기의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본래 중근동 지방에서 널리 시행되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로 말미암아 선민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의 선민을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으로 부터나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라내는 영적인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함으로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8

월요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17:15-27

새찬송가 191장

-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구십구 세였고
25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십삼 세였더라
26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 암송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 115:3)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의 말처럼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때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29

화요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창18:1-15

새찬송가 40장

- 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 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 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는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 12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15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 암송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 1:10)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음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이었고, 그래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됩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필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의심 말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을 줄 것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30

수요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창18:16-33

새찬송가 368장

-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 암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고를 듣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이를 위해 무려 여섯 번이나 거듭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매번 응답하시며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의 수만 충족되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귀히 여기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간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31

목요일

이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창19:1-11

새찬송가 242장

- 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 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말씀 암송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최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시 107:17)



죄의 자리에 머물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범죄를 하며 사악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추악한 도시는 결국 심판 받을 세상의 예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합니다.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과 안일함,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습니다. 소돔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즐거워하나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분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께 낱알이 고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3. 8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